

<새벽 2시에 울린 전화>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어김없이 집 전화기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얼마 전부터 새벽 2시만 되면 오는 전화였다. 늦은 밤에 울린 벨소리에 가족들이 잠을 깬고, 책을 보던 나도 방에서 나왔다.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잠에서 깬 채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으려 하자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 전화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대의 상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민통선 근처 강원도 산골마을에 살았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상사로 복무하고 계셨다. 새벽 2시에 전화한 그 상급자는 아버지와 같은 부대의 직속상관인 주임원사였다.

아버지가 부대에서 맡은 업무는 군부대 물자를 수송하고 관리하는 수송관이었다. 수송관은 그 위치의 특성상 부대물자에 손을 대기가 쉬웠다. 분실이나 폐기 처리를 하면 간단히 원하는 물자를 빼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송관을 맡고부터는 부대 내에 그런 일이 없어졌으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물품이 정확히 병사들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전화를 한 아버지 상관의 별명은 진드기였다. 부대물자를 들키지 않고 진득하게 잘 빨아먹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군 차량용 기름을 자기 차에 넣는다거나, 사병들에게 지급된 부식비를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은 진드기에게겐 코풀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런 진드기에게 그동안 잘 빨아먹던 꿀단지처럼 건들지 못하게 만든 아버지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군부대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보다,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군인들의 승진은 시험점수보다 상관이 주는 평가점수가 더 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승진할 시기가 되면 상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승진시기가 되자 진드기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부대 창고에 보관된 군대 물품을 달라고 했고, 그 대가로 평가점수를 좋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군복을 입고 태어났을 것 같은 아버지에게 그런 회유가 먹힐 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진드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긴급히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다급히 부대로 복귀한 아버지가 아침에 손에 쥐고 온 것은 이십여 만 원이 적힌 술값 영수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2시에 또 집으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 날부터 우리 집 전화는 부대 긴급심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새벽 2시에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부나 뇌물과 담 쌓고 오로지 부대 업무에 충실했던 아버지는 항상 남들보다 진급이 늦었다. 동기들보다 늦게 중사가 되었고, 상사로 진급할 때도 남들보다 늦었다. 진드기도 준기수로 보면 오히려 아버지보다 1년 늦은 후배였다.

아버지는 업무에 대한 능력과 애국심을 인정받아 부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하지만, 직속상관의 평가가 진급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환경에서 국무총리상은 큰 의미가 없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주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 그걸로 진급은 물 건너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냥 진드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셨다. 이번에 승진을 하면 아버지의 계급이 진드기와 같은 원사가 되니 함부로 못할 거라고 하셨다. 매일 밤 오는 전화에 질린 나도 이번만 눈감고 진드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런 일은 아버지의 군 생활에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하셨다.

결국 그 해 진급심사에서 아버지는 원사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근교에 있는 타부대로 이동하라는 전출 명령서를 받으셨다. 철모르는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진드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진드기는 우리와 같은 동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머리가 절반 쯤 벗겨지고 둥근 안경을 낀, 정말 공짜 좋아하게 생긴 그의 낯짝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거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바쁜 일상에서 몇 년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전역기념행사에 참석하라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타부대로 전출되신 아버지는 그 곳에서 주임원사가 되셨고, 무사히 장기복무를 마치고 명예 전역하셨다. 부사관 출신 군인에게 33년 장기복무 후 명예 전역하는 건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나라에

서는 보답으로 명예 전역자 보국훈장을 수여했고,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문득 진드기가 생각나 그가 어찌됐는지 물었다. 그러자, 곁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내가 대학에 진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너희 아버지가 타부대로 전출 간 얼마 후에 진드기는 새로 임명된 담당자와 짜고 병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방한복 200여벌을 외부로 팔아먹은 일이 있었어. 그런데, 방한복을 지급받지 못한 병사들이 상급부대에 이 일을 신고한 거야. 그 사건으로 상급부대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진드기는 타부대로 전출된 너희 아버지가 방한복을 팔아먹었다고 덮어씌웠단다.”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셨던 너희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온 대령님이 예전에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셨단다. 그 대령님과 함께 근무할 때 아버지는 대령님의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니 대령님이 아버지의 결백함을 모를 리가 없었지. 거기다 사건은 아버지가 부원사의 부대를 떠나고 발생한 일이었으니 누가 봐도 이상했지.”

“결국,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고, 진범은 진드기인걸로 밝혀졌지. 진드기는 그 사건으로 명예 전역을 몇 년 안 남기고, 불명예 전역을 했단다.”

살아가면서 가끔 아버지와 진드기의 일을 기억하곤 한다. 그때 만약 아버지가 진드기의 전화를 받거나 그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아버지는 진드기와 같은 부대에서 계속 복무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드기가 벌인 사건에 같이 연루되어 불명예전역을 하셔야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동기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로 지원했다. 그래서 만약, 내 이력서 한편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표시가 없었더라면,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33년간 바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항상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